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방향 찾는다

23일 전문가·환경단체 토론회
생태하천 복원·문화 연계 모색
내년초 광주천 기본계획 반영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4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지구’ 사업에 이어 광주천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이다. 광주천 수량의 확보와 함께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일 ‘오

는 23일 오후 광주전남녹색연합 주관, 영산강유역환경청 후원으로 광주천 토론회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사회로, 이승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이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 성찬용 한밭대 교수가 ‘생태하천 광주천을 위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오구균 광주전남녹색연합 전문위원장을 좌장으로, 장연주 광주시의회 의원, 김영선 환경생태학 박사, 김재주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국장, 홍기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대표 등이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오는 2019년 5월 광주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광주천 기본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의 내용을 점검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광주천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 9월 12일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위한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9월 28일 개최한 바 있다. 조성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소속 10개 부서, 유관기관 6곳, 교수·환경단체 등 민간전문가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태하천복원분과와 연계관광 문화벨트분과로 나눠 세부 실천과제를 다룰 계

획이다. 생태하천복원분과에서는 광주천의 수질 개선을, 연계관광 문화벨트분과에서는 광주천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맡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172억원, 시비 454억원 등 626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중심사천 19.15km 구간의 하천유지 용수 추가 확보, 친수공간 조성, 교량재가설 등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010년에는 광주천이 정부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올해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 양동시장역 사회적 기업 전시관 조성 협약

광주도시철도 양동시장역이 양동시장과 연계, 사회적 기업 매개로 특화 조성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19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공사 본사에서 ‘사회적경제 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동시장역에 ‘사회적경제 전시관’을 조성,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알림의 장을 마련하고, 나눔시장 등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관을 올 12월 초 개관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 활동 상품 전시대 설치, 사회적경제 주요 키워드 이미지 전시 등 시민들에게 상생과 나눔의 삶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49명 공개모집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에 올해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5 규정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9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건축계획·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조경, 도시·단지, 경관·색채·디자인, 설비·환경·에너지, 재난안전·범죄예방 등 건축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학 교교수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과 학위 소지자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위원은 2회 이상 연임은 불가하며 시 산하 위원회에 중복으로 3개 이상 참여하고 있을 경우 제외된다. 공모 참여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 건축주택과(613-4811)에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발행) 1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이력서(자기소개서, 논문 및 연구실적, 사진첨부) 1부 등을 첨부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사·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공공임대주택 ‘보여주는 집’서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광주시, LH 등과 업무협약
입주민 대상 취·창업 상담도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이 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공간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현재 LH가 건설해 공급중인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공간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보여주는 집’ 운영을 위해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임대주택 내 1개 공간을 한달간 무료 운영토록 제공하고, 광주시는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접 운영을 맡는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상담도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LH의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



는 집’은 일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가구, 침구, 커피,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꾸며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20년까지 광주전남에 건설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24개 단지로, 단지 내 ‘보여주는 집’은 올해 2곳(광주효천 천년나무 7단지, 나주 빛가람1단지)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해마다 3~5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보여주는 집’ 운영으로 향후 3년간 12곳에 120여 개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 4억9300만원의 매출과 이에 따른 일자리도 10여 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내달 9일까지 ‘용기 속 발효음식전’

광주김치타운은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김치홍보관에서 ‘용기 속 발효음식전’을 열고 발효음식과 전라도 용기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치, 된장, 간장, 식초 등의 발

효음식과 이를 숙성시키고 담아내는 용기 40여 종을 전시한다. 22일과 12월 1일에는 타 지역의 용기와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지역 전문 도예가와 함께 판을 만들어 용기를 제작하

는 전라도식 판장기법을 시연한다. 광주김치타운 관계자는 “우리 발효음식과 용기를 통해 옛 전통의 아름다움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김치타운홈페이지(kimchitown.gwangju.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613-8225)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11월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의 인문학’ 11월 강연이 21일 오후 광주기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을 맡은 소설가 이화경 씨는 ‘제익스피어가 들려주는 치유의 말’을 주제로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조건에 대해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어떤 위로를 건넸는지, 그의 4대 비극 작품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씨는 1997년 세계문학에 단편소설 ‘동근 잎 나팔꽃’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탐욕’, ‘사랑하고 쓰고 파괴하다’, ‘나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필요했다’ 등이 있다.

제6회 현진건문학상, 제9회 목포문학상 분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치유의 인문학’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는 광주의 대표 인문학 강좌로, 광주를 안팎한 치유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대중강연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12월에는 정혜운 CBS PD의 강연이 열린 예정이다. 강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tnt.gwangju.go.kr) ‘치유의 인문학’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주민, 보성지역 주요시설 이용료 감면

광주시 남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9월 보성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남구 주민들이 보성지역 주요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은 ‘보성군 국내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성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화 및 관광, 체육 등의 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날 현재 보성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시설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8

곳이다. 태백산맥 문학관의 경우 관람료가 전액 면제되며, 득량만의 아름다움을 간직 한 바다낚시공원엔 입장료와 낚시터 1회 이용료의 20%가 할인된다. 광주시민들도 즐겨 찾는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전액 감면 받으며, 율포 해수욕장은 성수기 일반 요금기준에서 20% 할인된다. 이밖에 녹차수도 보성의 랜드마크인 북재와 한국차박물관 시설은 개인 방문 시에도 단체 관람료 기준이 적용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